

#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초기 정전(正典)형성 과정에 관한 고찰\*

— 행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김 수미\*\*

(e-mail: soomikim7@hanmail.net)

---

## 目次

---

1. 『겐지모노가타리』 정전형성 시기와 그 요인
  2. 역사상 『겐지모노가타리』 행사의 재연
  3. 『겐지모노가타리』 텍스트에 그려진 행사와 준거
    - 3-1 산가(算賀)의 행사와 그 준거
    - 3-2 여악(女樂)과 에아와세(絵合) 행사와 그 준거
  4. 『겐지모노가타리』 정전형성과 행사와의 관련
  5. 맺음말
- 

## 1. 『겐지모노가타리』 정전형성 시기와 그 요인

11세기 초반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라고 하는 여성이 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일본고전문학의 대표작으로 긴 세월 동안 부동의 정전(canon)의 지위를 유지해 온 작품이다. 그렇다면 『겐지모노가타리』는 언제 정전의 지위를 획득한 것일까?

하루오 시라네(ハルオ シラネ)씨는 헤이안(平安) 시대 여성에 의해 쓰여진 산문 텍스트 가운데 『겐지모노가타리』만이 쓰여진 지 채 2세기도 지나지 않아 12세기말에 이미 정전화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중요한 요인으로 이 작품이 궁중 남성들(순제(俊成), 데이카(定家), 그 외의 남성가인)에 의해 와카(和歌)를

---

\* 본 논문은 2012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부교수 일본고전문학문화전공

창작하기 위한 지침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꼽고 있다<sup>3)</sup>. 하루오 씨는 그 증거로서 1192년에 행해진 『육백번 우타아와세(六百番歌合)』에서 후지와라 순제(藤原俊成)의 한지(判詞: 와카의 우열을 판정하는 말)을 들고 있다<sup>4)</sup>. 여기서 후지와라 순제는 “겐지모노가타리를 보지 않고 와카를 읊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라 밝히고 있는데 이 말에 의해 『겐지모노가타리』가 남성관리가 모인 공적인 장소에서 공인된 텍스트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타무라 마사코(三田村雅子)씨는 『겐지모노가타리』가 정전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한 최초의 사례로 1008년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가 중궁쇼시(彰子)의 출산 선물로 『겐지모노가타리』 호화본을 제작하여 헌상한 사실을 들고 있다. 미타무라씨는 당시 뛰어난 문화자산이 총동원된 이 호화본 제작을 기점으로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작품이 천황, 중궁, 섭정(攝政) 등 권력자들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정전으로서 재출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sup>5)</sup>.

이와 같이, 『겐지모노가타리』가 언제 정전으로 인정받게 되었는가 하는 형성시기의 문제는, 정전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정전형성의 요인과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원래 정전이란 “척도”, “잣대”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로 “고전으로서 지위를 획득한, 따라서 당연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특권적인 텍스트”를 가르킨다.<sup>6)</sup> 이에 대해 하루오씨는 정전의 개념에 대해 “권위를 부여받은 텍스트, 해석이나 모방할 가치가 있다고 넓게 인정받은 텍스트”<sup>7)</sup>라 정의하며, 12세기 정전으로 인정받은 『겐지모노가타리』가 13세기가 되면 여러가지 면에서 정전화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하루오씨가 제시한 초기 정전형성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 권위를 부여받은 결정적 텍스트로 인정받은 각 사본들간의 교정작업의 시행
- ② 텍스트에 관한 주석작업 및 학문적 연구의 개시
- ③ 상황(上皇), 장군(將軍)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한 텍스트 점유현상
- ④ 『겐지모노가타리』 텍스트를 표현, 문체의 모델로 삼거나, 와카의 전거, 원천 등으로 사용한 점<sup>8)</sup>

3) ハルオ・シラネ, 鈴木登美編(1999) 『創造された古典：カン形成・国民国家・日本文学』新曜社, p29

4) ハルオ・シラネ (2004) 「『源氏物語』について—カン形成・ジェンダー・文化的記憶」 『国際日本文学研究報告集 海外における源氏物語の世界』 笠間書房, p7

5) 三田村雅子(2008) 『記憶の中の源氏物語』新潮社, pp62-66

6) 白井義昭 (2003) 『正典の再構築』彩流社, pp19-25

7) ハルオ・シラネ, 鈴木登美編, 注(2)前掲書, p14

8) ハルオシラネ 注(3)前掲書, p7

이와 같이 『겐지모노가타리』 초기정전을 형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그 요인으로 지금까지 그다지 중요시 언급되지 않았던 <행사>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겐지모노가타리』를 재현한 <행사>가 역사상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작품의 지위를 격상시켰다는 사실은 최근 미타무라씨의 연구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나, 미타무라씨의 경우 <행사>를 정전형성의 요인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미타무라씨의 연구에서는 『겐지모노가타리』 작품 이후에 행해진 역사상 <행사>을 주로 고찰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겐지모노가타리』 작품안에 그려진 <행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작품내 행사에 관한 기술이 『겐지모노가타리』 초기 정전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행사>라는 요인이 단순히 정전을 형성하는 일개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주석과 준거>,<문화 수용>,<정치와 권력>등 다양한 문제와도 연쇄되어있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초기정전형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논증해 나가고자 한다.

## 2. 역사상 『겐지모노가타리』 행사의 재연

그렇다면 『겐지모노가타리』는 작품 이후에 행해진 역사상 <행사>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는 잠시 앞서 언급한 미타무라씨의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102년(康和4) 호리카와(堀河)천황이 주최한 아버지 시라카와인(白河院)의 오십세 생일축하연 행사(五十賀)에서 『겐지모노가타리』 모미지로가권(紅葉賀卷)에서 겐지(源氏)와 두중장(頭中將)이 춘 세이가이하(青海波)라는 춤이 복원되는 형태로 행해졌는데, 미타무라씨는 이러한 사실이 『겐지모노가타리』 작품의 지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고 지적한다<sup>9)</sup>. 무라카미(村上)천황 때부터 백수십년 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세이가이하’라는 춤이 『겐지모노가타리』 기록에 의거하는 형태로 왕실 행사에 복원되어진 것은 미타무라씨의 지적대로, 이 시점에서 『겐지모노가타리』가 왕권의례(王權儀禮)의 공적인 준거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이가이하의 춤의 상연은 그 이후에도 도바인(鳥羽院), 고시라가와와인(後白河院), 고사가인(後嵯峨院)의 오십세 생일축하연에서 되풀이해서 행해지는 등, 각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왕조문화의 후

9) 三田村雅子 注(3)前掲書, pp62-66.

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왔다<sup>10)</sup>.

이와 같이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행사가 후대 역사상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미타무라씨에 의해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세의 일기작품 『도하즈가타리(とはずかたり)』의 기술부분(인용문 【1】 【2】)이다. 이 기술부분은 후대 행사가 세이가이하 춤과 같이 『겐지모노가타리』행사의 개별적 요소를 답습했다고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행사가 『겐지모노가타리』작품내에 그려진 행사 전체를 그대로 따라 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다.

【1】 또한 고후카쿠사인이 저서, 그 게임에 진 향연을 후시미도노에서 행한다고 해서 ①로쿠조인의 여악을 본따 행하였다. ②무라사키노우에의 역할은 히가시의 부인이 맡고 온나산노미야의 거문고 대신 쟁의금을 신참인 다카치카의 딸에게 연주하게 하려고, 다카치카가 일부러 청을 넣었다고 들으니 웬지 화가 나서 참가하고 싶지 않았지만

またこの御所御負、伏見殿にてあるべしとて、①六条院の女楽をまねばる。②紫の上には東の御方、女三の宮の琴の代りに、箏の琴を隆親の女の今参りに弾かせむにと、隆親、ことさら所望ありと聞くより、などやらむ、むつかしくて、参りたくもなきに(『とはずかたり』卷二 p318) 11)

【2】 이미 주연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쪽으로 노보들이 순서대로 앉아 각자 악기를 앞에 놓고 서로 맘에 드는 깔개를 ③와카나권에 쓰여진 본문 그대로 순번을 정해 놓아두었다. 시각이 되자, ④고후카쿠가인은 로쿠조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가메야마인은 유기리 역할을 대신 담당하였다.

すでに九献始まりなどして、こなたに女房、しだいに居て、心々の樂器前に置き、思ひ思ひの褥など、③若菜の巻にやしるし文のままに定め置かれて、時なりて、④主の院は六条院に代り、新院は大將に代り(『とはずかたり』卷二, p320)

인용문 【1】 과 【2】 는 1277년 고후리카와인(後堀河院)에서 고후카쿠사인(後深草院)과 가케야마인(龜山院)이 주최한 행사에 관한 기술부분이다. 여기서 ①“『겐지모노가타리』의 로쿠조인(六条院)의 여악(女樂)을 본따 행하였다”라는 본문부분이나, ③“『겐지모노가타리』와카나권(若菜卷)에 쓰여진 본문 그대로”라고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행사는 『겐지모노가타리』와카나권에 그려진 여악의 행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형태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②에서는 무라사키노우에(紫上)의 역할을 히가시의 부인(東の御方:藤原

10) 三田村雅子(2008) 『天皇になれなかった皇子のものがたり(とんぼの本)』 芸術新潮編集部(編集), pp86-87

11) 久保田 淳(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47、建礼門院右京大夫集・とはずかたり』 小学館

暗子)이 맡고 온나산노미야(女三宮)의 거문고 대신 쟁의금(箏の琴)을 신참인 다카치카(隆親)의 딸이 연주하였다고 적혀져 있으며, ④에서는 고후카쿠사인(主の御所様:後深草院)은 로쿠조인(六条院:光源氏)을 대신하고 가메야마인(新院:龜山院)은 유기리(夕霧)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처럼 이 행사에서는 히카루 겐지, 유기리, 무라사키노우에, 온나산노미야, 아카시노키미(明石君)라고 하는 『겐지모노가타리』 등장인물의 역할을 각각 역사상 실존 인물이 담당하여, 마치 연극을 행하듯 역할을 맡아 행사를 진행시켜갔던 것이다. 더욱이, 악기, 복장, 장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여악과 동일하게 진행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도하즈가타리』의 기술은 『겐지모노가타리』 작품내에 그려진 <행사>가 왕조문화의 규범으로서, 모방할만한 텍스트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쓰고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장르에 지나지 않는(당시 모노가타리는 와카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행사>가 어떻게 긴 세월동안 후대에 규범으로 여겨질 만큼 권위를 부여받은 것일까?

그것은 『겐지모노가타리』가 후대 헤이안 시대의 궁정문화의 상징으로서 문화적 권위가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겐지모노가타리』 작품내에 그려진 행사를 그대로 답습해 후대 행사가 치러졌다는 『도하즈가타리』 기술이 단적으로 말해 주듯이, 『겐지모노가타리』 본문내에 그려진 행사, 그 자체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겐지모노가타리』 텍스트에 그려진 행사와 그 준거를 고찰해 봄으로써 『겐지모노가타리』의 초기정전형성의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 3. 『겐지모노가타리』 텍스트에 그려진 행사와 준거

『겐지모노가타리』에는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기술이 존재한다. 히나타 가즈마사(日向一雅)씨는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행사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인생의례에 관한 행사, 매년 행해지는 연중행사, 그 외에 때때로 행해지는 임시행사”로 분류하고 있다<sup>12)</sup>.

여기서 인생의례에 관한 행사는 탄생과 관련된 행사(誕生·産養·五十日の祝), 관례에 관한 것(袴着·裳着·元服), 교육에 관한 것(読書始·大学入学등), 혼인(結婚·入内·興入등), 산가(算賀), 장례에 관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

12) 日向一雅(2002) 「行事と準撰説—光源氏の人生を中心にして」 『源氏物語研究集成』 笠間書房, p35.

한다. 이러한 인생의례의 행사 중, 본 절에서는 산가에 관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산가란 장수(長壽)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헤이안 시대 당시 40세 이후 십년을 주기로 연회를 행하였다. 사십세 생일 축하연을 四十賀, 오십세 생일축하연을 五十賀라 하였다(이하, 본 논문에서는 고유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四十賀, 五十賀로 표기하도록 한다)

『겐지모노가타리』가 쓰여지기 이전, 이치조(一條)천황 전까지 역사상 행해진 산가를 살펴보면, 천황주최로 행한 상황의 산가는 사가(嵯峨)상황, 우다(宇多)상황, 두 번에 불과하며, 천황의 산가도 닌묘(仁明)천황, 다이고(醍醐)천황, 무라카미(村上) 천황의 四十賀로 세 차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 하카마다 미쓰야스(袴田光康)씨는“준나(淳和), 요제이(陽成), 레이제이(冷泉), 가잔(花山)상황은 연령적으로는 산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산가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헤이안 시대초 천황과 상황에게 공적인 궁중 산가의례는 40세를 맞이하면 자동적으로 누구나 치루는 통과례가 아니라, 산가의 주최측의 주체성과 깊게 관련된 정치적인 의례”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3)</sup>.

하카마다씨의 지적처럼, 산가가 적정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 주최자측의 정치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산가도 모노가타리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행사의 준거(準拠)를 살펴보는 것은, 역사상 행사와의 관련을 파악하고, 모노가타리가 내포한 행사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 보여진다.

종래 『겐지모노가타리』의 행사에 대한 준거는 고주석서를 중심으로 언급되었으며, 근년의 선행연구로는 히나타씨<sup>14)</sup>, 아사오 히로요시(浅尾広良)씨<sup>15)</sup>, 하카마다씨<sup>16)</sup> 등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지만, 본고에서는 작품내 행사의 역사상 전거를 고찰해 봄으로써, <행사>가 어떠한 가치체계하에서 정전형성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또한, 산가의 행사와 더불어 여기서는 임시행사 중 와카나 하권에 그려진 여악(女樂)과 에아와세권(絵合巻)에 그려진 에아와세 행사를 그 고찰범위에 포함

13) 袴田光康(2007) 「『源氏物語』の算賀—宮廷算賀と直系皇統の視点から—」 『王朝文学と通過儀礼』 竹林舎, pp406-407.

14) 日向一雅 注(10)前掲論文, p35.

15) 浅尾広良 (2004) 「光源氏の算賀—四十賀の典礼」 『源氏物語の準拠と系譜』 翰林書房, pp211-229, 「六条院の女楽—調和と対照の美学—」 『源氏物語の準拠と系譜』 翰林書房, pp230-251.

16) 袴田光康 注(11)前掲論文, pp406-407.

시키고자 한다. 여악은 『겐지모노가타리』 이전 역사상으로 행해진 전례가 없는 행사이며 에마와세도 『겐지모노가타리』 작자의 창작으로 언급되고 있는 행사이다. 그렇다면, 『겐지모노가타리』 작품내에서 이들 행사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고주석과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행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본 장에서는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수많은 행사 중, 이상의 이유로 그 고찰범위를 산가, 여악, 에마와세 행사에 한정하여 그 본문기술과 전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1 산가(算賀) 행사와 그 준거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산가의 기록은, 모미지노가권의 일원(一院)의 축하연, 오토메권(少女卷)의 시키부쿄노미야(式部卿宮)의 五十賀, 와카나상권(若菜上卷)의 겐지의 四十賀, 와카나 하권(若菜下卷)의 스자쿠인(朱雀院)의 五十賀, 4회에 걸쳐서 등장한다. 그 중에서 시키부쿄노미야의 五十賀는 겐지와 무라사키노우에가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는 있으나, 행사 당일에 관한 기술은 없다. 또한, 스자쿠인의 五十賀는, 정월 천황에 의해 행해졌으나 로쿠조인에서 개최될 예정인 행사는 무라사키우에의 발명, 온나산노미야의 회임으로 인해 연기되고 연말이 되어서야 겨우 온나산노미야 주최로 시연(試樂)이 행해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이 두 개의 산가는 행사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없는 데 반해, 모미지노가권의 축하연이나 와카나 상권의 四十賀는 작품내 구체적인 묘사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두 개의 행사를 중심으로 논해나가고자 한다

<表 1 >

『겐지모노가타리』의 행사		역사상 준거	준거의 출전		
①	모미지 노가 권	가리쓰보(桐壺)천황이 일원을 위해 주최한 행사	916년(延喜16) 다이고(醍醐)천황이 아버지인 우다(宇多)상황을 위해 개최한 五十賀	『가카이쇼(河海抄)』	
②	와카나 상권	겐지의 四十賀	다마가즈라(玉鬘)주최	924년(延長2)우다상황이 개최한 다이고천황의 四十賀	『가카이쇼』 『가쵸요조(花鳥余情)』
			무라사키노우	906년(延喜6) 우다상황의 四十賀	『가카이쇼』
			후지와라노 호시(藤原褒子)가 주최한 우다상황의 六十賀	『가카이쇼』	

			에 주최	927년(延長5)요시아키라친왕(克明親王)주최의 후지와라노 기요쓰라(藤原清貫)의 六十賀			
				929년(延長7)호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의 五十賀)			
				940년(天曆3)다다히라의 七十賀			
			아 키 고 노 무 중 궁(秋好 中宮) 주 최	유 기 리 주최	아쓰요시친왕(敦慶親王)이 우다상황의 五十賀 때 경전을 서사해 바친 일	937년(承平7) 요제이(陽成)상황의 七十賀과 850년(嘉祥3) 닌묘(仁明)친황의 四十賀	『가초요쵸』
						906년(延喜6)우다상황의 四十賀	『가카이쇼』 『가초요쵸』
						926년(延長4) 다이고 친황에 의한 우다상황의 六十賀	『가카이쇼』
			우다상황이 주최한 다이고친황의 四十賀	『가초요쵸』			
			유 기 리 주최	우다상황의 四十賀와 五十賀	『가카이쇼』		
				다이고 친황의 四十賀		『가초요쵸』	

먼저 ①모미지노가권에 그려진 산가는 축하연의 무대가 되는 스자쿠인의 모습이나 겐지가 춘 세이가이하 춤이 상세히 기술되어져 있다. 특히, 이 세이가이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상 1102년(康和4) 호리가와천황이 주최한 아버지 시라카와인의 五十賀 행사때 복원된 것으로 이 모미지노가 권에 그려진 행사의 기록은 후대 역사상 행사에 깊게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그렇다면 『겐지모노가타리』 텍스트 내에 그려진 행사는 전대의 어떠한 행사를 준거로 하여 그려진 것일까?

<表 1>의 ①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미지노가권의 행사의 준거로는 『가카이쇼(河海抄)』가 지적한 우다상황의 五十賀 (916년(延喜16) 3月7日)가 가장 유력한 설이다<sup>17)</sup>. 이 설은 『겐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기리쓰보(桐壺)천황이 다이고 친황으로, 일원(一院)을 우다상황에 비견하여, 다이고친황이 아버지인

17) 玉上啄弥編 (1968) 『紫明抄·河海抄』角川書店, p271



우다상황의 五十賀 행사를 주최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다교키(宇多御記)』 기록에 의하면 우다상황의 五十賀 행사가 3月5日 시악(試樂)이 행해졌으며, 아쓰요시친황(敦慶親王)이나 아쓰가타친황(敦固親王)이 창가를 읊은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모노가타리 본문의 내용과 부합한다<sup>18)</sup>. 또한, “재상 두명, 좌위문독, 우위문독이 좌우로 무악의 행사를 담당하였다(宰相二人、左衛門督、右衛門督左右の樂のこと行ふ)” (모미지노가권p314) 라는 본문기술에 대해, 아오야기 다가지(青柳隆志)씨는 “보통 이와 같이 현직에 있는 인물이 행사를 직접 준비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이러한 사실도 우다인의 五十賀 당시, 참의(參議)인 후지와라노 야스타다(藤原保忠)가 무악의 행사를 맡았던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sup>19)</sup>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미지노가 행사는 “기리쓰보 천황 만년에 이룩한 높은 문화적 도달도를 상징하는 부분인 만큼, 작자가 세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증거를 세심하게 배려하고”<sup>20)</sup>있으며 역사상 우다상황의 五十賀에 입각하여 그리는 것으로 모노가타리 행사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③와카나 상권에 그려진 준태상천황(准太上天皇) 인 겐지의 四十賀 행사이다. 이는 공적인 축하연으로 치러져야 할 행사였지만 겐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겐지의 양녀(다마가즈라, 아키고노무 중궁), 부인(무라사키노우에), 아들(유기리)이 주최하는 사적인 행사로 치러지게 되었다.

먼저, 다마가즈라 주최로 행해진 행사는 로쿠조인(六条院) 봄의 마을(春の町) 침전(寢殿)에서 정월 23일 쥐의 날에 행해졌다. 이 날짜에 관해 『가카이쇼』는 924년(延長2) 정월 쥐의 날에 행해진 다이고 천황의 四十賀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계승하여 『가초요조(花鳥余情)』도 정월 쥐의 날에 행사가 행해진 사실, 四十賀인 점, 와카나를 헌상한 점 등등 공통점을 지적하며, 다이고천황의 四十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미지노가 행사의 유력한 근거로 고주석은 다이고천황의 四十賀를 제시하면서, 이 행사의 세부적인 도구나 실내장식에 관해서는 또다른 전거를 제시하고 있다.

- 【1】 엄숙하게 ①의자 따위는 세우지 않고 깔개 사십 개와 방석, 사방침 등 모든 물품을 매우 아름답게 꾸미셨다. ②라전으로 만든 꿩 두 짝에 옷상자 네 개를 놓아두고 여름 겨울의 옷가지, 향단지, 약상자, 벼루, 머리감는 물단지와 빗도구같은 것을 세밀한 곳까지 더할 나위없이 아름답게 준비하셨

18) 鈴木一雄·伊藤博 (2002) 『源氏物語の鑑賞と基礎知識 紅葉賀・花宴』至文堂, pp26-27.

19) 注(16)前掲書, pp26-27.

다. ③머리에 꽃는 조화를 놓아두는 받침은 침향이나 자단으로 만들어  
 うるはしく①椅子などは立てず、御地敷四十枚、御褥、脇息など、すべてその俱ど  
 も、いときよらにせさせたまへり。②螺鈿の御厨子二具に御衣箱四つ据ゑて、夏冬の  
 御装束、香壺、菓の箱、御硯、甘坏、搔上の箱などやうのもの、内々きよらを尽くした  
 まへり。③御挿頭の台には、沈、紫檀を作り(若菜上卷pp55-56)

【2】 과일 바구니 마흔 개, 음식을 담은 바구니가 마흔 개를 유가리 중남언을  
 비롯하여 그럴 만한 지위의 사람들이 차례로 헌상하시었다. ④술잔을 돌  
 리며 봄나물 국을 드셨다.

籠物四十枝、折櫃物四十、中納言をはじめたてまつりて、さるべきかぎり、とりつづき  
 たまへり。④御土器くんだり、若菜の御あついのまゐる(同卷p58)

위의 인용문 【1】 ①의 기술부분에 관해 『가카이쇼』는 906년(延喜6) 우다  
 상황의 四十賀와 916년(延喜16) 우다상황의 五十賀를 전거로 지적하고 ②의  
 본문에 관해서는 우다상황의 五十賀를 전거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③부분의  
 전거로는 924년(延長2) 다이고천황의 四十賀를, 【2】 ④의 전거로는 다이고천  
 황의 四十賀와 우다상황의 五十賀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마가즈라가 주최한 행사는 공식적인 가연(賀宴)은 아니었지만,  
 최초로 행해진 겐지의 四十賀인 만큼 화려한 물품 등이 동원되었다. 더욱이 그  
 성대한 행사에 관한 묘사를 역사상 다이고천황, 우다상황 때의 행사를 전거로  
 하여 그려냄으로써 그 권위를 입증하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해진 무라사키노우에가 주최한 四十賀는 10월 사가노(嵯峨野)  
 불당에서 약사불공양(藥師仏供養)을 행한 후, 23일 니조인(二条院)에서 가연이  
 행해졌다. 『가카이쇼』는 이와 같이 부인이 주최한 행사의 예로, 후지와라노  
 호시(藤原褒子)가 주최한 우다상황의 六十賀를 전거로 들고 있다. 또한 공식적  
 인 가연에 약사불공양을 행한 예로는, 927년(延長5) 요시아키라친왕(克明親王)  
 이 후지와라노 기요쓰라(藤原清貫)의 六十賀 당시, 법회를 개최하여 약사불상  
 (藥師仏像), 약사금강수명반약심경(藥師金剛壽命般若心經)을 제작한 일이나,  
 929년(延長7) 후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의 五十賀와 940년(天曆3) 다다히  
 라의 七十賀 당시, 법회와 약사불공양이 행해진 것을 전거로 열거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시(오후 2시) 무렵, 약사들이 참내하였다. 만세라과 황장을 춤추  
 고(末の刻ばかり)に樂人參る。万歳樂、オウジョウなど舞ひて”(와카나상권p95) 라는 본  
 문분의 역사적 전거로, 우다상황의 四十賀의 예를 들고 있으며, 『가초요쇼』는  
 “나전으로 만든 의자를 세웠다”(와카나상권pp93-94) “옷을 걸쳐두는 책상 열  
 두 개를 세워놓고(御衣の机十二立てて)”(와카나상권p94) 본문부분의 전거로  
 937년(承平7) 12월 요제이(陽成)상황의 七十賀의 예를, “꽃으로 장식한 관(冠)

을 놓는 받침대는 침향의 다리로 제작되어 황금색 새가 은으로 만든 가지에 앉아 있는 취향(御挿頭の台に、沈の華足、黄金の鳥、銀の枝にゐたる心ばへ)” (와카나상권p94)의 본문의 전거로, 850년(嘉祥3) 닌묘(仁明)천황의 四十賀의 예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모노가타리에 그려진 무라사키노우에가 주최한 행사는 의자를 세워 둔 일이나 악사들을 초청한 사실이 상징적으로 말해 주듯이 다마카즈라가 주최한 행사보다 격식을 차린 의식으로 행해졌으며, 이는 닌묘천황, 요제이천황, 우다상황, 후지와라노 다다히라의 역사상 행사와 오버랩되어 그 권위가 뒷받침되어 그려지고 있다.

세 번째 행사는 아키고노무 중궁의 주최로, 로쿠조인의 가을의 마을(秋の町) 침전에서 행해졌다. 특히 이 행사에는 가연이 치러지기 전 12월 20일경 나라(奈良)에 있는 칠대사(七大寺)에 독경과 옷감 4천필, 헤이안 수도에 있는 사십사(四十寺)에 비단 4백필 등의 보시가 행해졌는데, 이러한 불사(仏事)의 내용에 주목하여 『가카이쇼』는 역사상 전거를 나열하고 있다. 즉, 『가카이쇼』는 916년(延喜16) 아쓰요시라친황(敦慶親王)이 우다상황의 五十賀 당시, 인화사(仁和寺)에서 법회를 행한 일, 또한, 926년(延長4) 다이고천황이 우다상황의 六十賀 당시 평성칠대사(平城七大寺)에 옷감 6천필을, 경칠사(京七寺)에 비단 6백필을 보시한 것을 전거로 들고 있으며, 또한, 『가쇼요쇼』는 924년(延長2) 우다상황이 다이고천황의 四十賀 당시 경문을 암송한 일을 전거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이 행사는 중궁이 주최한 행사인 만큼, 절에 보시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물품 또한 궁중행사에 비견할 만큼 그 위용을 갖춘 행사였다. 이는 우다상황, 다이고천황이라고 하는 황족의 역사상 행사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모노가타리는 이러한 역사상 행사의 내용을 답습함으로써 본 행사에 격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리가 주최한 행사는 레이제이천황의 칙명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내장료(内蔵寮), 곡창원(穀倉院)등 조정관청이 동원되어 두중장(頭中將)이 칙명을 받아 준비한 공식적인 행사였다. 이 행사에는 천황의 명에 의해 태정대신(太政大臣)이 참석하고 친황, 좌우대신, 대납언(大納言), 중납언(中納言), 재상(宰相), 전상인(殿上人)등 많은 남성관료들이 운집하였다. 특히, 이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레이제이 천황이 겐지에게 하사한 어마(御馬) 40필이다<sup>21)</sup>. 이에 대해 『가카이쇼』는 그 전거로서 우다상황의 五十賀 당시 다이고천황이 말10필을 진상한 사실이나, 다이고천황의 四十賀 당시, 우다상황이 천

21) "어마(御馬) 40필, 좌우의 마료(馬寮), 육위부(六衛府)의 관인, 위에서부터 차례로 끌고와 정리하는 동안, 해가 저물었다(御馬四十疋、左右の馬寮、六衛府の官人、上より次々に牽きととのふるほど、日暮れはてぬ)" (와카나상권 p100)

황에게 말을 현상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초요쇼』도 이 부분의 전거로 우다상황의 五十賀를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겐지모노가타리』 텍스트에 그려진 히카루 겐지의 四十賀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역사상 천황이나 상황의 행사에 입각하여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작품내 행사에 격식과 위용을 더해줘 후대 역사상 행사로 재현될 만한 규범적 텍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2 여악(女樂)과 에아와세(絵合) 행사와 그 준거

다음으로는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임시행사 중, 와카나하권의 여악과 에아와세권의 에아와세 행사와 그 준거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表 2 >

	『겐지모노가타리』		역사상의 준거	준거의 출전/ 출처
③	에 아 와 세 권	레이제이천황 주최로 궁중에 서 행한 에아와세	960년(天德4) 무라카미 천황이 주최한 궁중 우타아와세(歌合)	『가카이쇼』
④	와 카 나 하 권	<여악> 스자쿠천황(朱雀帝) 의 五十賀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로쿠죠인에서 행한 사 적인 가연	동일	아사오 히 로요시(淺 尾広良)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에아와세는 레이제이 천황의 치세에 우메쓰보 여어(梅壺女御)와 고기덴 여어(弘微殿女御)측에서 준비한 그림의 우열을 가르는 행사였다. 처음에는 후지쓰보 중궁(藤壺中宮)이 주최하는 여성들의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졌으며, 이후 레이제이 천황의 주최로 조정의 공식적 행사로 행해지게 된다.

『겐지모노가타리』에서는 이 행사가 “겐지와 권중납언(權中納言)이라고 하는 당시 막강한 두 세력가의 정권 대결구도가 고양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해진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나, 사실상 『겐지모노가타리』 이전에 ‘에아와세’는 역사상 행해진 전례가 없는 행사였다”<sup>22)</sup>. 이처럼 이전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우열을 가르는 대상으로 사용된 바 없었던 <예(絵) : 그림>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22) 鈴木一雄·田中隆昭 (2002) 『源氏物語の鑑賞と基礎知識 絵合·松風』至文堂 pp.56-57

이 행사를 그려낸 것은 『겐지모노가타리』 작자의 창작으로 인정할 만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그 행사기술에 관한 전거로서, 960년(天德4) 3월 무라카미 천황이 주최한 궁중우타아와세(内裏歌合)를 지적하고 있다<sup>23)</sup>. 이를 처음 지적한 것은 고주석서 『가카이쇼』였다.

①여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태반소(台盤所)에 천황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여관들은 남북으로 각각 나누어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전상인(殿上人)들은 후량전(後涼殿)의 뒷마루에 앉아 각기 자기가 응원하는 편을 들며 대기하고 있었다.

②왼쪽으로는 자단(紫檀)나무로 만든 상자가 소방(蘇芳)나무의 꽃모양 다리를 한 상위에 놓여져 있었다. 상의 깔개로는 보라색 당나라 비단, 안쪽 깔개로는 엷은 자색으로 물들인 당나라 능직이 놓여져 있다. 여동 여섯명은 빨간색 겹옷 위에 흰색/벚꽃색 한삼을 걸쳐 입고, 그 아래쪽으로는 주홍색 옷에 엷은 보라/청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자태와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③오른쪽으로는 침향 상자를 천향(淺香)으로 만든 상 위에 두고 안쪽 깔개로 청색 고려 비단이 놓여졌다. 상다리에 매어는 끈과 꽃모양 다리가 세련된 자태였다. 여동들은 청색 겹옷에 연두색 한삼을 입고, 그 아래에 황색과 노랑색 옷을 입고 있었다.

女房のさぶらひに御座よそはせて、北南方々に分かれてさぶらふ。殿上人は後涼殿の簀子におのおの心よせつつさぶらふ。②左は紫檀の箱に蘇芳の華足、敷物には紫地の唐の錦、打敷は葡染(えびぞめ)の唐の綺なり。童六人、赤色に桜襲の汗衫、相は紅に藤襲の織物なり。姿、用意などなべてばらず見ゆ。③右は沈の箱に浅香の下机、打敷は青地の高麗の錦、あしゆひの組、華足の心ばへなどいまめかし。童、青色に柳の汗衫、山吹襲の相着たり(総合卷385-386)

위 모노가타리 내용을 보면, 천황의 자리가 태반소(台盤所)에, 그 남북으로 여관들이 자리하며 전상인이 후량전(後涼殿) 뒷마루에 위치하고 있다고 적혀져 있다. 『가카이쇼』에서는 960년(天德4) 무라카미 천황이 주최한 궁중 우타아와세의 경우, 태반소에 천황의 의자가 세워지고, 그곳과 주렴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여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후량전의 동쪽 뒷마루에 관료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적혀져 있다. 즉, 모노가타리 본문①에 그려진 행사장소가 무라카미 천황이 주최한 우타아와세의 장소에 입각하여 그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문②③에 등장하는 자단, 소방, 침향, 천향이라고 하는 목재는 당시 귀하게 여겨지던 목재이며, 본 행사에는 꽃모양 다리, 깔개, 안깔개 등행사용

23) 清水好子(1980) 『源氏物語の文体と方法』東京大学出版会, p265. 日向一雅(2002) 「行事と準拠説—光源氏の人生を中心に—」 『源氏物語研究集成』笠間書房, pp77-78.

장식물이 갖춰짐으로써 공적인 행사로서의 격식과 성대함을 표현하고 있다. 『가카이쇼』는 이러한 본문②③의 기술부분에 관해서도 960년 행해진 궁중 우타아와세를 준거로 지적하며 모노가타리에 그려진 궁중작법, 도구, 여관의 의복에 관한 표현까지 960년 궁중 우타아와세의 기록에 의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궁중 우타아와세는 <우타(歌): 와카>가 우열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행해진 행사로, <그림>이 경연대상이 된 모노가타리의 에아와세와는 그 소재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이 두 행사는 하나하나의 개별적 표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장소, 좌측의 승리, 그 후 관현의 연주가 행해지는 등, 전체 진행과 구성 등에 있어서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에아와세 행사 또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역사상 행해진 궁중행사에 입각하여 그려냄으로서 이 모노가타리 행사에 궁중의례적, 정전의 규범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④와카나 하권에 그려진 여악(女樂)은 스자쿠 천황의 五十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겐지가 로쿠조인에서 사적인 연회로 준비한 행사였다. 『겐지모노가타리』 행사에는 대부분 남성들이 연주(演奏)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여성들만의 연주가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악(女樂)”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가카이쇼』는 『사기(史記)』나 『좌전(左伝)』에 등장한 단어를 인용, 이를 출전으로 삼고 있지만, 『사기』나 『좌전』의 예는 야마모토 도시타쓰(山本利達)씨의 지적처럼 “여성 악사(女性の樂人)”를 의미하는 말로 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여악”의 전거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sup>24</sup>). 『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의 주(注)에서는 이 부분을 모노가타리 작가의 창작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역사상 준거에 관해 세심하게 제시하고 있는 『가카이쇼』를 비롯하여 고주석서에서도 이 행사에 관한 역사상 준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이 모노가타리의 여악이 고대 궁중행사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다케다 세이코(竹田誠子)씨는 모노가타리에 그려진 “정월 이십일 경”이라는 여악의 개최일은 무라카미 천황 당시 빈번하게 행해지던 천황주최의 연회의 날짜와 동일하며, 더욱이 천황주최의 내연(内宴)에서 “나이쿄보의 여악(内教坊의女樂)”이 연주된 것은 로쿠조인의 사적인 연회장에서 여악이 연주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한다<sup>25</sup>). 더욱이 아사오 히로요시(浅尾広良)씨는 『겐지모노가타

24) 山本利達(1989) 「女樂についての考察」 『滋賀大学教育学部紀要』, pp210-218.

25) 竹田誠子(1989) 「若葉下巻女樂における“場”の設定と主題性」 『国学院大学大学院紀要—文学研究科』

리』에 그려진 여악의 각 요소(여동의 옷차림, 악기의 구성과 음색, 여성들의 옷차림과 꽃에 대한 비유, 향기)를 분석한 결과, 모노가타리의 행사 전체의 구성이 960년 무라카미 천황이 주최한 궁중 우타아와세를 준거로 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sup>26)</sup>. 아사오씨는 “여악의 악기구성은 960년 우타아와세 당시와 동일”하며, 이 우타아와세에서 천황의 부인 4명(中将更衣·宰相更衣·弁更衣·安察更衣)이 2명씩 좌우로 나뉘어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노가타리의 여악에 있어서도 겐지의 부인 4명(女三宮、紫上、明石女御、明石君)이 참가하여 대조적인 관계로 그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아사오씨가 ④의 전거로 제시한 960년 우타아와세는 ③에아와세의 전거로 지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에아와세나 작가의 창작으로 여겨왔던 여악도, 본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중행사인 960년 궁중우타아와세의 기록을 그 배경으로 함으로써 권위와 문화적 힘을 갖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 4. 『겐지모노가타리』 정전형성과 행사와의 관련

이상 <표1>과 <표2>를 보면,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행사의 장면은 ①처럼 기리쓰보 천황 만년의 높은 문화적 수준을 상징하는 장면이거나, ②④와 같이, 로쿠조인의 영화를 나타내는 장면, 또는 ③과 같이, 레이제이 천황 치세의 문화적 우월성을 제시하는 장면이다. 즉, 『겐지모노가타리』에서 행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문화적 우월성과 권위를 표방하고자 하는 대목에서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노가타리는 이러한 행사의 구체적인 장면까지 작자의 창작이라기보다 역사상 행사기록을 참조하여 그려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노가타리 행사의 준거로 지적된 역사상 행사를 보면, 우다상황이나 다이고천황, 무라카미천황 시기의 궁중행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다상황과 다이고천황의 산가와 그 시기는 『신기시킴(新儀式)』나 『사이큐기(西宮記)』가 거의 이 시기의 산가의례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의식절차가 정비되어진 시기이며, 효의 이념에서도 의식절차 면에 있어서도 후대에 규범이 되는 행사였다<sup>27)</sup>. 또한, 960년 궁중우타아와세는 천황의 치세하에 당시 귀족들이 통합되

26) 浅尾広良(2004) 「六条院の女楽—調和对照の美学—」 『源氏物語の準拠と系譜』 翰林書房, pp230-251

27) 袴田光康 (2007) 「『源氏物語』の算賀—宮廷算賀と直系皇統の視点から—」 『王朝文学と通過儀礼』 竹林舎, pp406-433.

고 군신화락(君臣和樂)의 협조적 분위기 속에 처음으로 실현된 상징적인 행사로, 후대 규범이 된 것이었다.<sup>28)</sup>

즉, 『겐지모노가타리』 행사장면의 준거로 사용된 역사상 행사는 이와 같이 후대의 규범이 된 헤이안 시대의 행사였다. 그렇다면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행사가 것처럼 오랫동안 모방할 만한 텍스트로서, 후대의 규범이 될만한 권위가 부여된 것은 이와같은 규범이 된 역사상 행사를 준거로 하여 묘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겐지모노가타리』 작품에는 많은 행사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만 그 섬세한 필치와 표현은 궁중생활을 경험한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여성작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행사에 관한 묘사는 이러한 작가의 창작이나 체험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노가타리 행사에 관한 기술은 역사상 행사를 준거로 하여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신중히 기술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겐지모노가타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러한 역사적 행사기록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품내 행사기록은 『겐지모노가타리』를 정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궁중행사나 관례, 작법 등을 규범화하고 한문으로 기록하여 관리한 것은 남성관리였다. 그들은 이러한 유직고실(有職故実)을 의례서나 혹은 자신의 사적인 일기에 기록하여 남겼다. 헤이안 시대에 편찬된 미나모토노 다카야키라(源高明)의 『사이큐기』, 호지와라노 긴토(藤原公任)의 『호쿠잔쇼(北山抄)』, 오에노마사히사(大江匡房)의 『고케시다이(江家次第)』는 모두 남성이 궁중작법, 귀족간의 의례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행사>나 <의례>에 관한 기록은 지배층의 권력유지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갔다. 무라사키 시키부는 이러한 남성들 세계에서 행해지던 유직고실(有職故実), 의례에 관한 기록을 모노가타리 세계에 끌어들여 옛 문화를 수용하고 격조높은 행사의 기록으로 재창출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겐지모노가타리』의 행사는 <정치권력>과 <문화수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겐지모노가타리』의 초기정전형성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후대 권력자들은 자신이 왕조문화의 계승자, 후계자로서 권위를 표방하기 위해 『겐지모노가타리』의 행사를 재연함으로써 이를 활용해 갔던 것이다.

그런데, 『겐지모노가타리』에 행사에 관한 내용을 집필한 것은 무라사키 시키부였지만, 그러한 행사의 준거로서 역사상 행해진 궁중행사를 처음 제시한

28) 鈴木一雄·宮崎莊平(2004) 『源氏物語の鑑賞と基礎知識 若菜下』至文堂, p134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세 주석서인 『가카이쇼』였다.

『가카이쇼』는 1362년(貞治元) 요쓰지 요시나리(四辻善成)가 쓴 겐지학 초기의 대표적인 주석서로, 역사상 풍부한 증거, 출전을 제시한 겐지 주석의 규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책이다. 이 문헌이 집필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고다이 고천황의 왕조복귀 정책을 계승한 아시카가(足利)장군 휘하에서 요쓰지 요시나리가 『가카이쇼』를 완성시켜 아시카가 요시아키라(足利義稔)에게 헌상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카이쇼』는 왕조문화를 규범으로 삼고자 하는 고다이 고천황과 아시카가 장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히나타가즈마사(日向一雅)씨는 『가카이쇼』가 고다이 고천황과 준토쿠인(順徳院)의 사상을 매개로 하여 집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9)</sup>. 고다이 고천황(1288-1339)과 준토쿠인(1197-1242)은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고 왕조부흥을 꾀한 사람들로 『건무연중행사(建武年中行事)』(1334), 『금비초(禁秘抄)』(1219-1222)라고 하는 궁중행사나 의식에 관한 의례서를 집필한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준토쿠인은 『준토쿠인어기(順徳院御記)』(1211-1221)에서 “겐지모노가타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서책이다. 실로 모든 도와 예가 이 한편에 응축되어 있다”라 말하며 『겐지모노가타리』를 예법의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왕조부흥의 시대풍조 속에서 탄생한 『가카이쇼』에 의해 『겐지모노가타리』 행사에 관한 증거가 제시되고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어 갔다. 게다가 그 전거로 제시된 것은 우다상황, 다이고천황, 무라카미천황의 시대의 행사들이었다. 이는 단순히 『겐지모노가타리』가 세 천황의 치세를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행사가 후대의 규범으로 칭송받는 것이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겐지모노가타리』에 그려진 <행사>를 왕조문화의 규범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주석자의 의도가 명백히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즉, 『겐지모노가타리』 텍스트에 그려진 <행사>와 그 역사상 증거,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는 주석서의 행위가 『겐지모노가타리』 초기 정전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카이쇼』가 집필된 시기에 주의해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겐지모노가타리』는 12세기말에 정전화되어 13세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그 정전화 현상이 나타났다. 제 2장에서 언급한 『겐지모노가타리』 행사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기록이 있는 『도하즈가타리』는 고후카쿠사인(後深草院)을 모신 여관 니쥬(二条)가 14살(1271년)에서부터 49세(1306년)까지를 기록한 것

29) 日向一雅(2003) 「『河海抄』の背景—順徳院と後醍醐天皇の源氏物語觀を媒介にして—」 『明治大学人文科学研究紀要』第52冊, pp355-368.

으로, 그 성립은 1313년경으로 추정된다. 『가카이쇼』가 집필된 것은 1362년 이므로 『겐지모노가타리』 정전화 현상이 여러가지 면에서 나타난 13세기, <행사>도 『겐지모노가타리』 초기 정전화 현상에 깊이 관여하면서, 14세기 중반이 되면 『가카이쇼』에 의해 『겐지모노가타리』의 <행사>는 선대의 행사를 준거로 하여 후대 행사의 규범이 된 부동의 권위가 부여받게 된다.

이와 같이 <행사>는 <정치권력><문화수용><주석과 준거>등의 문제와 연동되어지는 『겐지모노가타리』 초기정전형성에 깊이 관여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 본 논문은 종래 정전형성의 요인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행사>가 실제로 『겐지모노가타리』 초기정전형성과정에서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논증하려 한 것이다. 미타무라씨에 의해 후대 역사상 행사가 『겐지모노가타리』 작품의 지위를 격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겐지모노가타리』 작품내 그려진 행사가 그 원동력임을 밝히고 『겐지모노가타리』 작품내에 그려진 구체적인 행사기술이 우다상황, 다이고천황, 무라카미천황 시기의 행사라고 하는 역사상 규범이 될만한 행사를 답습하여 그려짐으로써 『겐지모노가타리』라는 텍스트를 정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겐지모노가타리』 텍스트에 그려진 <행사>와 그 역사상 준거, 그리고 그러한 준거를 제시하는 주석서의 행위가 『겐지모노가타리』 초기 정전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행사>라는 요인은 『겐지모노가타리』의 정전형성요소 중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준거와 주석서><문화수용><정치권력>등 종래 각각의 정전형성의 요소로서 취급되어왔던 문제들과 연쇄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행사>가 각기 다른 다양한 정전형성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겐지모노가타리』의 정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정전형성에 관한 논의가 하나의 잣대, 또는 각각의 척도를 제시하는 방법론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임을 밝혀내고 그들간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작업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 【参考文献】

- 浅尾広良 (2004) 「光源氏の算賀一四十賀の典禮」 『源氏物語の準拠と系譜』 翰林書房, pp211-229.
- \_\_\_\_\_ (2004) 「六条院の女楽一調和と対照の美学一」 『源氏物語の準拠と系譜』 翰林書房, pp230-251.
- 久保田 淳(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47、建礼門院右京大夫集・とはずかたり』 小学館
- 清水好子 (1980) 『源氏物語の文体と方法』 東京大学出版会, p 265.
- 白井義昭 (2003) 『正典の再構築』 彩流社, pp19-25.
- 鈴木一雄・伊藤博(2002) 『源氏物語の鑑賞と基礎知識 紅葉賀・花宴』 至文堂, pp26-27.
- 鈴木一雄・田中隆昭 (2002) 『源氏物語の鑑賞と基礎知識 総合・松風』 至文堂, pp56-57.
- 鈴木一雄・宮崎莊平 (2004) 『源氏物語の鑑賞と基礎知識 若菜下』 至文堂, p 134.
- 竹田誠子 (1989) 「若菜下巻女楽における“場”の設定と主題性」 『国学院大学大学院紀要一文  
学研究科』
- 玉上啄弥編 (1968) 『紫明抄・河海抄』 角川書店, p 271.
- ハルオ・シラネ, 鈴木登美編(1999) 『創造された古典：カノン形成・国民国家・日本文学』 新曜社, p29.
- ハルオ・シラネ (2004) 「『源氏物語』について—カノン形成・ジェンダー・文化的記憶」 『国際日本文学研究報告集3 海外における源氏物語の世界』 笠間書房, p7.
- 日向一雅 (2002) 「行事と準拠説—光源氏の人生を中心にして」 『源氏物語研究集成』 笠間書房, pp77-78.
- \_\_\_\_\_ (2003) 「『河海抄』の背景—順徳院と後醍醐天皇の源氏物語観を媒介にして—」 『明治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第52冊, pp355-368.
- 袴田光康 (2007) 「『源氏物語』の算賀—宮廷算賀と直系皇統の視点から—」 『王朝文学と通過儀礼』 竹林舎, pp406-407.
- 三田村雅子(2008) 『天皇になれなかった皇子のものがたり(とんぼの本)』 芸術新潮編集部(編集), pp86-87.
- 三田村雅子(2008) 『記憶の中の源氏物語』 新潮社, pp62-66.
- 山本利達 (1989) 「女楽についての考察」 『滋賀大学教育学部紀要』, pp210-218.

## 要 旨

本稿は、今まで正典形成の要因としてあまり重視されてこなかった〈行事〉というのが、『源氏物語』の初期正典形成の重要な要因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る。特に、ここでは、三田村雅子氏が注目した後代の行事ではなく、『源氏物語』内に描かれた〈行事〉のことに注目して論を展開してみた。

まず考察範囲としては、『源氏物語』における数多い行事の中で、算賀の行事、絵合巻の絵合、若菜巻の女楽に限定し、これらの行事の準拠を考察してみることによって、作品内に描かれた行事がどのように正典形成に関与しているかを考察してみた。

その結果、『源氏物語』における行事は、歴史上規範とされてきた宇多上皇、醍醐天皇、村上天皇の時代の行事を裏付けに描かれていることによって権威が付与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特に、詳細な『源氏物語』内に描かれた詳細な行事の記述が、その先代の歴史行事の記録に依拠した形で描かれることによって、『源氏物語』というテキストを正典と位置づける重要な役割を担当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当時、儀礼、行事に関する記録は男性により管理され、支配層の政治権力の維持、文化の継承として重要な手段として利用されてきたが、紫式部はそのような行事、儀礼に関する記録を、自分の物語世界に持ち込み、格調ある行事の記事として再誕生していく。それによって、後代権力者たちは、自分を王朝文化の継承者として標榜するため、『源氏物語』の行事を再現していくのであり、それは『源氏物語』を格上げし、この作品を正典化していくの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のである。さらに、『源氏物語』の行事を描いたのは紫式部であるが、その行事の史上の準拠を提示したのは、注釈書『河海抄』であった。そこには、『源氏物語』に描かれた行事を王朝文化の規範として提示しようとする注釈者の意図が明確に現れる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に、本稿では〈行事〉というのが、〈テキスト〉〈準拠と注釈書〉〈文化受容〉〈政治権力〉など、今まで各々正典形成の一要素として扱われてきたものと連鎖しながら、『源氏物語』の初期正典形成を論じる上で看過できない重要な問題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正典，行事，『源氏物語』，準拠，注釈書，王朝文化，権威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